

■ 논문 ■

프랑스 이주민의 민족 통합,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19세기말 바레스를 중심으로-

마 은 지

I. 머리말

프랑스 공화국의 비전들 중에 하나는 공화국은 ‘하나이면서 불가분’하고 민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단지 개인들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시민은 프랑스혁명 이래로 ‘보편적’이었고 민족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의 타자와의 다름의 표시는 공공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었다. 다름의 표시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내에 국한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어떤 한 개인이 공화국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또 프랑스 문화를 채택한다면 프랑스 민족에 동화될 수 있었다. 공화국의 그와 같은 평등한 개인들의 시민자격은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결사체를 용인하지 않는다. 어느 하위-민족 집단도 특정 환경들 하에서 법적으로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든 집단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얻을 수는 없었다. 이 특별한 지위들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특별한 권리들이나 고려사항들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국어’나 ‘족류 집단(ethnic group)’ 같은 그런 범주들은 프랑스의 민족 합의에 관한 문제들에서 항상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주들이 집단들 사이에 다름을 의식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특별대우에 대한 잠재적 요구를 생기게 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sup>1)</sup> 그러므로 개별

1) Timothy Baycroft, *Franc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08), p. 204.

족류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족류성(ethnicity)은 프랑스에서 분류나 구별의 범주로 결코 인정된 적이 없었다. 예컨대 프랑스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회구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프랑스적인 통합 모델은 프랑스 국가 앞에 정식으로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을 중재하지 않고도 그들을 공화국 민족 내에 개인들로 통합할 수 있었다. 많은 프랑스 공화국 지도자들은 공화국적인 동화 모델의 성공을 커다란 하나의 자부심의 원천으로 간주했고, 또 이런 사고방식의 직접적인 결과로 프랑스 역사를 통틀어 과별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앵글로-색슨 세계로부터 프랑스의 정체성과 프랑스의 차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표시로 지적한다.<sup>2)</sup>

하지만 이런 공화국의 변할 수 없는 원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공화국의 통합에서 가장 세밀한 난제 중에 하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공화국 안으로 통합하는 문제이다. 스스로 프랑스인으로 자처하고 법적으로 승인된 시민적 민족(civic nation)의 지위를 프랑스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마다 거기에 이주민의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는 이들이 프랑스 사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공화국 나름의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여 이제는 ‘정체성의 정치’를 논하는 시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프랑스로의 이주의 역사에서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대량 유입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기록된다. 이주민들은 프랑스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적인 보충적인 노동력과 군대의 병사들로 받아들여졌다. 이주민의 물결은 계속 이어져 20세기 초 이래로 인구 비율로 따질 때 프랑스 이주민의 수는 이민국의 나라이자 국가건설 초기부터 이민정책을 실시했던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았다. 1930년 미국이 인구 10만 명당 외국인이 492명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외국인의 비율이 515명이었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미국은 외국인 인구 비율이 6%인데 반해 프랑스는 11-12%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이민국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이주민의 역사는 크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2) *Ibid.*, p. 213.

이 글에서는 19세기 말 프랑스로의 이주민의 대량 유입이 일어나자 제3공화국이 실시했던 이주민의 민족 통합 이념의 이상과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3공화국 초창기에 프랑스 산업화와 이민정책을 고찰한다. 이어서 동시대에 세기말에 프랑스의 유력한 민족주의자였던 모리스 바레스의 민족과 민족주의 사상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생각을 살펴본다. 그런 관찰을 통해 바레스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사상을 조탁하고 발표하게 된 동기로써 바레스가 이들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들의 한 전형으로 간주했던 유대인에 대한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서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한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에 외국인 및 유대인 이주민들이 공화국에 미친 영향들이 이주민의 민족 통합의 신화와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19세기말 산업화와 이민정책

### 1. 산업화의 그늘과 사회문제

제3공화국이 성립되었지만 공화국 초반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갈등과 혼란의 불안한 정국양상을 나타냈다. 그런 연유로 세기 전환기인 1898년부터 1906~7년까지 프랑스인들의 삶은 인민의 삶이 비혁명적 시기인데도 정치적인 정도로 아주 정열적이었다. 이는 제3공화국 체제가 사회적 평등주의를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시이다. 왜냐하면 기회주의 공화국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노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입법적·행정적 간섭을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공교육 같은 한정된 영역에 국한시켰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보다 넓은 영역을 대개는 사회경제 세력들의 자유경쟁에 방임해버렸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합법화(1884)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보호주의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지만, 제3공화국은 노동계급과 도시의 프티부르주아계급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민족적 통합에 대한 강조와 애국적 가치들의 주입식 교육에도 불구하고, 제3공화국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패배, 항복, 굴욕의 산물로 간주되었다.<sup>3)</sup> 세기 전환기에 프랑스의 정치적 난국을 이끌었던 급진주의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제3공화국의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르베리우는 대학살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가치들의 심대한 위기가 준비된 것은 급진주의의 그늘에서였고, 사회적 위기의 거의 모든 기본 요인들은 1914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한다.<sup>4)</sup>

게다가 19세기 후반 프랑스 산업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원적 성격이다. 프랑스 산업화<sup>5)</sup>는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과 기계화된 생산,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숙련과 수공업적 분산노동이라는 '두발로 걷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근대적 공장이 수공업적 작업장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했다. 또 산업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sup>6)</sup> 뿐만 아니라, 19세기에는 사회가 전형적인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업사회와 공업사회가 공존하는 이중구조 사회였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산업국가인 영국 및 독일과 농업국가인 유럽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

3) Brian Jenkins, 김인중, 마은지 역, 『프랑스 민족주의』 (서울: 나남, 2010), 164쪽; 마은지, 『모리스 바레스의 민족과 민족주의(1880~1914)』,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48쪽.

4) Madeleine Rebérioux, *La République radicale? 1898-1914* (Paris: Édition du Seuil, 1975), p. 234.

5) P. K. O'Brien & C. Keyder, "Les voies de passage vers la société industrielle en Grande-Bretagne et en France(1780-1914)", *Annales ESC*, 34-6(1979), p. 1287; 19세기 프랑스 경제발전론에 대해서는 두 시각이 있다. 프랑스 경제성장의 지연론 또는 비판론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경제적 후진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로는 로스토우(W. W. Rostow), 랜디스(D. Landes), 폴러드(S. Pollard), 킨들버거(C. P. Kindleberger) 등을 들 수 있다. 윤승준, 『수정주의적 프랑스 산업화론에 대한 일고찰』, 『프랑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서울: 느티나무, 1988), 381-420쪽 참조.

6) 김경근, 『프랑스 근대사연구』 (한울아카데미, 1998), 282쪽; François Crouzet, "Quelques problèmes de l'histoire de l'industrialisation au XIXe siècle," *Revue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53-4(1975), pp. 534-540; 크루제는 프랑스의 산업화는 영국과의 차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영국을 능가할 수 없는 대량생산 분야에서 경쟁하는 대신에 풍부하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생산을 발달시킬 수 있을 때 가능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랭스와 루베의 혼합 모직물, 리옹의 견직물이 그런 예들이다. 크루제에 대해서는 김경근, 『프랑스 근대사연구』, 288쪽.

사이의 가운데쯤에 놓인 반(半)산업화된 반(半)농업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산업의 이중구조 때문에 1870년대부터 시작된 20년간에 걸친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영국보다 경제적으로 불황의 여파는 덜 받았다고 말해진다. 이런 점에서 19세기 프랑스의 산업화나 도시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고, 기존의 근대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sup>8)</sup> 다시 말해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산업화는 이웃의 영국이나 독일과는 다른 이원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지체되지 않고 완만한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구조 속에서 1850년대부터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프랑스 산업화의 결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가 모든 지역과 모든 계급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구도시를 개조하고 신도시를 만들어냈으나 농촌 지역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도시 중산층의 성격을 철저히 바꾸어 놓았고 새로운 공장 노동자 계급을 탄생시켰으나 농민에게는 그렇게 현저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농촌과 소도시 민중은 물질적 진보에 아주 근소하게 참여하는데 불과했다. 그들은 도시에서 흘러 들어오는 사상에 회의적인 보수주의자요 전통주의자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세기 프랑스는 도시의 선진 경제와 농촌의 후진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농민은 근대적인 농민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낙후된 농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sup>9)</sup> 게다가 농촌공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다. 농촌과 비교하여 도시는 공업의 진전이 농촌보다는 유리했지만, 도시노동자 또한 전통적 장인층과 공장노동자가 갈라져 있었다. 게다가 수많은 노동자들은 국가가 뒤를 봐주는 사용자들과의 계급투쟁에 갇히게 되었는데, 국가는 자유기업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양시앵 레짐의 동업조합의 제한 관행들 중 어떤 것을 복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1831년, 1848년에 일어난

7) Jean-Charles Asselain, *Histoire économique de la France I* (Paris: Édition du Seuil, 1984), p. 9.

8) 김경근, 『프랑스 근대사연구』, 261쪽.

9) Antoine Prost, *Petite histoire de la France XXe siècle* (Paris: Armand Colin, 1996), p. 10.

노동자들의 봉기를 국가는 폭력으로 진압했다.<sup>10)</sup> 이는 산업화의 수혜가 프랑스 전 지역과 계급에 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과, 여전히 지역들 간에, 계급들 간에 갈라진 사회의 모습을 말해준다.

다른 또 하나는 경기침체(1873~1895)에 직접적 타격을 입는 사회계층인 프티부르주아와 노동자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뿌리가 없는 지식인, 독일의 친구, 족류적(ethnic)·종교적 이방인, ‘프랑스 정부, 경제, 언론, 나아가 프랑스 사회 전반에 대해 비밀스러운 지배력을 획득한’ 음모를 일삼는 도당이라는 편견을 갖게 된다. 그런 편견들이 반 의회제적 권위주의, 복수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전체에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하였고, 이들 계층들에게 흡인력을 갖게 되었다.<sup>11)</sup> 이시기에 출현하는 프랑스의 반유대주의는 주로 경제적 측면이 중심이었고, 주로 프랑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지도층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공격이 많았다. 그런데 비단 유대인 지도층뿐만 아니라, 계층을 불문하고 유대인 전체로의 반감이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이원적인 산업구조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토대의 부족현상과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인구감소와 과도한 집중, 노동자들과 기업 소유주들 사이에 적대감,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이 그런 사회문제들이었다.<sup>12)</sup>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한 부적응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사회개혁의 틀을 짜기를 꺼려했다. 강베타가 사회문제는 없다고 선언했던 잘못된 믿음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그런 와중에 파리에서의 주택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방치되어갔다. 그곳 파리의 주택들의 1/3은 비위생적이었고, 100만 명의 파리 인들은 필요한 통기 면적도 없는 채로 살았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불만들은 알콜 중독의 위협에 맞서 제기되었다. 1872년 술을 파는 상점들이 179,000개가 있었다. 1881년에 주점과 선술집

10) *Ibid.*

11) Jenkins, 『프랑스 민족주의』, 168쪽.

12) Michael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Sorel, Barrès and Maurras*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010(1959)), pp. 13-19.

수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 이후 1889년에는 410,000개 그리고 1913년에는 483,000개가 있었다. 넷 중에 하나는 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메닐몽탕(Menilmontant)에는 20개의 상점 중에 14개의 카페가 있었다. 밀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1869년에 9만 명에서 1913년에 일백 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sup>13)</sup> 1889년에 평균 소비는 일인당 4리터였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의 증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고, 폐결핵의 증가, 일찍이 사망자의 수와 범죄를 초래했다. 게다가, 그것은 인구 증가의 감소의 한 원인으로 믿어졌다.<sup>14)</sup>

19세기 후반에 공화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 민족주의의 출현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적으로는 선거권의 확대, 대중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평등주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다수 프랑스 인민들은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방임주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18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대불황기(1882~96)”를 해결하는 출구로 국가는 제국주의를 통해 이를 타개하려고 했다. 게다가 정치적 지배계급은 실업계와 수많은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어 국가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계급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프티 부르주아나 일반 민중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컸으며 그들 사이에 사회적 간극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3공화국의 기초였던 민족 통합과 단일성 의식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 2. 19세기 말 프랑스 이민정책

19세기말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농업과 공업의 이원적인 산업구조, 소기업 중심의 경영방식, 그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 인구증가의 실패와 같은 제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경제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인구의 64%가 1886년에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1911년에는 56%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은 평균보다

13) 민간 소비로 생산되는 모든 술에 대한 소비세 철폐로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

14)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p. 17-18.



더 경직성을 시사한다. 프랑스는 거의 농촌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서구의 나라였고, 또한 농촌적이고 상업적인 경제조직의 규모는 작았다. 토지소유자 700백만 명중에 29,000명은 3,000만 에이커를 소유했는데 500만 농민들은 600만 에이커를 소유했다. 1895년에 경작지의 85%는 그 크기가 25에이커 미만이었고 39%는 단지 2.5에이커였다.<sup>15)</sup> 이것은 소농민이 지배적인 농촌사회의 실상을 보여준다. 또한 프랑스 평균 기업가는 단독으로 하거나 동업자들과 운영하는 영세 사업가였다. 1896년에 575,000개의 공업 시설 중에 534,000개는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거느렸고,<sup>16)</sup> 반면 공장의 1%미만만이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1906년경에는 전 공업 고용인의 오직 41%만이 1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공장에서 일했다. 프랑스는 아직도 대기업 집중은 거의 얼마 되지 않는 소기업의 나라였다.

공업 세계에서 주된 결함은 노동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주들이 그들 노동자들에게 양보하기를 꺼려했다. 그런 연유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들은 만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휴는 거의 없었고, 또한 1900년에 노동일 수와 노동시간은 길었다. 1898년 공장을 규제하는 법규들을 위반한 건수는 6000건이었다. 소위 “자선단체” 조직들은 4~5명의 아이들을 고용했다. 그리고 위생 규정들은 널리 무시되었다. 산업 재해율은 1890년대에 늘어났다. 1898년에만 35,000건의 사고가 있었고, 그 중에 643건은 치명적이었다. 이에 대한 사찰이 어려웠는데, 1899년에 309,000개의 회사 가운데 270,300개가 11명 미만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조건과 그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응은 폭력행위의 증가, 총파업 사상,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단체들의 성장을 가져왔다. 고용주들의 양보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사회적 입법이 통과된 것은 1900년대 말쯤에 이르러서였는데, 이 즈음에 이르러 노동계급 운동은 강도와 영향력이 커져 정권을 위협할

---

15) W. F. Ogburn and W. Jaffé, *The Economic Development of Post-War Fr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9), p. 472;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5.

16) S. B. Clough, *France: A History of National Economics 1789-1939* (New York: Octagon Books, 1970(1939));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232.



정도로 성장했다.<sup>17)</sup>

무엇보다 이민정책은 프랑스 인구 증가의 실패에 따른 하나의 방안이었다. 특히 프랑스 인구 감소는 독일에서의 급속한 인구 팽창과 비교되었다. 1885년에 두 나라 사이에는 숫자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12년경 프랑스 인구가 3,900만 명이었을 때 독일은 6,800만이었다. 더욱이, 그 인구는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1900년에는 인구의 35.6%가 40살이 넘었다. 이렇게 되자 제3공화국의 관심은 프랑스 총인구의 침체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1875년 이후 농촌 인구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감소를 모두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1890년경에도 절반 이상의 인구가 그 자체를 대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의 외국인 체류자들이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컨대, 1911년에 그로노블 지역에서만도 12,000명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민자의 대량 유입은 앞서 제2제국기의 공업성장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었다. 즉 노동력의 필요성으로 유입된 외국인의 수가 한해 평균 4~5만 명이 유입되면서 1880년대 초에 이르면 약 100만 명에 이르렀다. 그 외국인들의 출신지역은 프랑스의 인근 국가들인 이탈리아와 벨기에에서 주로 왔고, 그들의 정착지는 노르 도나 부슈뒤론 같은 국경 지대가 주된 정착지였다. 그런데 19세기 말 경기침체와 대불황(1882~96)의 여파로 외국인의 유입은 거의 정지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경제 위기 때 탄광업과 건설업 같은 부문에 일자리를 놓고 프랑스인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치열한 경쟁과 잦은 충돌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1867~1893년 사이에 양자 사이에 벌어진 충돌 사건은 약 89건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논조가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 청원, 시위에서 자주 동원 되었다는 점이다.<sup>18)</sup> 여기서 노동시장을 놓고 프랑스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쟁이 경제적 적대감에서

17)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8.

18)Michelle Perrot, “Les rapports entre ouvrier français et étrangers (1871-1893)”, *Bulletin de la Société d'histoire moderne* (1960); Pierre Nora (dir.), 김인중, 유희수 외 역, 『기억의 장소 3』 (서울: 아카넷, 2010), 260쪽.

정치적 적대감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에 일어난 충돌의 첫 희생자는 벨기에 사람들이었다. 1892년 파드칼레 도에서 발생한 드로쿠로(Drocourt) 광산 사건은 대표적인 반(反)벨기에 민중폭동이었다. 이 광산 노동자의 3/4이 벨기에 사람들이었지만 프랑스 광부들의 위협 때문에 서둘러 코뮌을 떠나야 했고 그들이 파손한 살림살이 손실액이 가족당 40~50프랑이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19세기 말에 외국인 혐오의 한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이탈리아 이민자에 대한 공격이었다. 「프티 마르세예」지는 1881년 마르세유 도심 거리에서 벌어진 프랑스인들과 이탈리아인들 사이의 난투극을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러 ‘벨장스(Belsunce)’ 거리에 모여든 순간 젊은 패거리들이 이탈리아인들을 공격하자 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수 백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도시를 떠나야 했다. 1893년 에그몬트에서 일어난 이탈리아인들의 반대 소요 사태는 심각한 폭력을 동반하며 절정에 이르렀다.<sup>19)</sup>

게다가 1880년대에 벌어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민중의 반감과 폭력 행위는 이제 국가와 자국민의 이익 추구하고 같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 벌어졌던 적대감이 족류공동체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피에몬테인들, 오베르뉴인들, 플랑드르인들 등에 대한 적대감)이었다면, 19세기 말에 이르면 이주민의 문제는 좌·우파의 논쟁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문제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불량제장군 지지운동(Boulangism)은 외국인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선거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대규모 운동이었다고 간주된다. 자국민의 고용을 옹호하는 동시에 외국이 노동력을 이용하고 이들의 추방이나 억제 조치를 반대하던 대기업 고용주를 비난한 것이 민중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드레뤼스 사건의 종결과 더불어 정치지형이 뚜렷해지면서 비로소 이민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입장이 확연해지는데, 우파는 경제위기에 가장 타격을 많은 받은 집단들에게 공공안전과 국익을 강조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제안하며 지지를 얻어냈다. 한편 좌파는 인권을 앞세워 프랑스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9) 같은 책, 261-262쪽.

대한 동등한 처우를 요구했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들을 아울러 요구했다. 당시 밀레랑 법은 공공토목 공사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전체 노동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게다가 노동조합들은 직업소개소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민자들의 고용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 넣게 되었다.<sup>20)</sup>

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프랑스의 이민정책<sup>21)</sup>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산업화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모했다. 즉 경제 성장기에는 이민의 대량 유입이 일어났다면, 경제침체기에는 실업과 고용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최근에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과 프랑스 노동자들의 통합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외국인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적대감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외국인 혐오는 정치영역으로 파급되었다. 저간의 상황으로 이민문제가 국가문제로 대두하게 되는 시기는 프랑스에서 19세기 말이었다.<sup>22)</sup> 이시기 자국민의 노동력 보호의 문제는 계급과 정당을 넘어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공통된 정치적인 의제였고 민족문제였다. 이때 사회적 정체성이 민족정체성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 III. 바레스의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

#### 1. 뿌리에 대한 논전-귀화와 동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프랑스인의 삶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몇몇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인프라의 구축은 대도시라는 새로운 기인한 현상을 빚었다. 대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은 자연스럽게 인구이동을 끌어당겼다.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인구 이동에 가세했다. 1911년 20만 인구를 가진 도시는 단 5개 도시였다. 사람들을 두렵게

---

20)같은 책, 264쪽.

21)프랑스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참조.

22)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259쪽.

하는 것은 파리의 성장이었다, 그 성장에 따른 정치문제들이었다. 이미 프랑스의 과도한 집중 현상에 대해서 토크빌은 “1789년경에, 파리는 프랑스다”<sup>23)</sup> 라고 말한바 있었다. 루이 14세는 파리의 성장을 제어하기 위해 여섯 차례 시도를 했다. 그곳의 인구는 반세기 만에 두 배로 증가해 1850년 경에는 100만 명 정도가 되었다. 1870년부터 1900년까지 파리의 인구 증가는 프랑스에서 총 증가의 절반에 달했다. 이러한 집중의 정치적 함의는 곧 명백해졌다. “어떤 사람이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출생할 때 그 사람은 나라는 없고…그 사람은 도로만 있다”라고 뒤마(Dumas)는 말할 정도였다. 바레스의 경우도 파리 집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즉 “개인들의 뿌리 뽑힘, 파리에서 존재하는 고도로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줄 하는 집단들(coteries)<sup>24)</sup>, 나라 전체의 지식인의 삶의 흡수가 가져오는 불만의 집중, 즉 체제에 대한 정치활동의 증가, 그리고 그것의 주된 특징의 하나인 정치적 집중에 대한 비판”<sup>25)</sup>을 이야기 했다.

대도시가 낳은 사회적 병폐들을 진단했던 모리스 바레스는 당시 젊은이들의 제왕으로 추앙되었다. 정치인이자 문인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바레스의 발언과 사상이 프랑스 지성사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세기말을 대변할 정도의 무게를 싣고 있었다. 바레스는 세기말의 프랑스가 앓고 있는 증상들을 ‘퇴폐(decadence)’라는 용어로 진단했고, 그에 대한 처방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모색했다. 바레스는 프랑스의 퇴폐, 체제의 약화, 프랑스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쇠퇴에 관심을 집중했다. 퇴폐의 신호는 프랑스가 일등 강국으로서의 역사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민족들의 위계에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세계열강들 속에서 쇠퇴하는 프랑스의 지위에 대한 이런 관심이 퇴폐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sup>26)</sup> 바레스는 위기에 닥친 프랑스를 구원할 여러 사상들과

23) Alexis de Tocqueville, *L'Ancien régime*, (Oxford: B. Blackwell, 1949), p. 80;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7.

24) 1900년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문사들에서 일하고 있었다.

25) Robert de Jouvenel, *La République des camarades* (Paris: Grasset, 1914), p. 121;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7.

26) *Ibid.*, p. 98.

방식들이 있었지만, 프랑스가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전통 속에, 즉 가장 뿌리 깊은 전통 속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프랑스의 쇠퇴에 대한 처방책은 프랑스의 전통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와 더불어 전통적 제도들에 대한 재인식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인에게는 공통된 인식과 제도가 현재 없다. 전통적 제도들이 무엇인가? 프랑스의 해체되고 무너져서인 민족을 결속시킬 수 있는 방향과 오늘날 프랑스를 떠받치고 있는 힘들을 바레스는 설명하고자 했다. 바레스는 그 해법을 ‘토지와 죽은자들(la terre et les morts)’에서 찾았다.<sup>27)</sup> 토지와 죽은자들은 바레스의 민족 개념을 구성하는 용어이다.<sup>28)</sup>

문제는 그러한 민족개념을 고안해낼 때 바레스는 외국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외국인들의 존재를 “뿌리 뽑힌 사람들(déraciné)”의 한 부류로 바라보았다. 바레스에게 있어서 전통과 규율이 없음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의 가장 좋은 예는 ‘뿌리 뽑힌 사람들’<sup>29)</sup>, 또는 뿌리 뽑힌 개인들이었다. 특별히 파리의 집중에 따른 개인들의 뿌리 뽑힘이 있었다. 뿌리 뽑힌 사람들의 비극은 그 족류공동체의 경험에 간직되어있는 모든 전통들을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 모두에서 볼 때, 그의 민족으로부터 고립된 젊은이는 텍스트에서 고립된 단어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즉 그 사람은 전승이 없는 젊은 야수였다. 하지만 조국은 언제나 뿌리 뽑힌 자의 영혼보다 뿌리내린 자의 영혼에서 보다 강했다. 뿌리 뽑힌

---

27) *Ibid.*, p. 111.

28) 바레스는 민족 개념을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같은 환경 속에서 공동의 전설들, 전통들, 습속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가 된 하나의 인간집단”으로 간주하였다. 진짜 민족이란 시민적 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의식, 소속감, 정체성들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바레스의 민족 개념은 당시 공화국의 근대적인 시민적 민족(civic nation) 개념과 구분되는 족류적 민족(ethnic nation)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족류적 민족 개념은 역사·문화적인 속성을 담고 있다. 마은지, 「모리스 바레스의 ‘민족’ 개념(1880-1914)」, 『프랑스사 연구』 31집(2014), 101쪽.

29) 바레스의 작품 『뿌리 뽑힌 사람들(Les Déracinés)』는 7명의 로렌 청년들 가운데 파리로 떠나 버린 6명과 끝까지 로렌을 지키는 한 친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자는 일단 그가 그의 고토(homeland)를 떠나면, 단지 일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세상에서 설 어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은 두 가지 점에서 바람직했다. 그것은 삶의 잔혹한 압력들에 맞서 보호의 수단이자 개인적인 강렬한 행복감의 수단, 그리고 프랑스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프랑스의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토대이기도 했다.<sup>30)</sup> 그러므로 프랑스는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에너지를 되찾고, 보호하고, 늘리는 것이 필요했다. 바레스에게서 토지로의 귀환, 즉 토지를 통한 구원은 도시화와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인한 프랑스의 퇴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의 표현이었고, 프랑스 사회의 도덕적 신체적 퇴화에 직면하여 프랑스를 위해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의 저장소와 같은 의미를 던져주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19세기 말 프랑스 안에서 벌어졌던 외국인들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무거운 공격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다. 19세 말 제3공화국 체제에 대한 반격을 가했던 주요 인물들인 소렐도, 모라스도, 그리고 바레스도 그 정도와 독성은 광범위하게 다양했지만 반유대주의적인 성향들을 띠었다. 소렐에게 유대인은 비생산적인 금권정치가이거나 물질주의자, 합리주의적 지식인, 세계주의자 그리고 전통이 없는 존재였다. 바레스에게 유대인은 프랑스의 몸과 영혼에 강력한 외국적인 요소였다. 모라스에게서는, 유대인은 해로운 사상의 원천, 프랑스 안에서 진짜 통치하는 조직체의 한 구성원이었고, 또 조국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핵심 요소였다.<sup>31)</sup>

그런데 외국인들, 무엇보다 유대인 이들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국적부여라는 방식으로 통한 공화국으로서의 귀화와 동화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귀화인의 국적 부여의 문제가 일으킨 가장 부정적 사례가 드레뤼스 사건이었다. “드레뤼스는 반역자이다. 프랑스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유대인 민족의

30)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10.

31)*Ibid.*, p. 210.

거대한 세력이 확인되는 이상 반유대주의운동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sup>32)</sup>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바레스는 프랑스의 안위와 보호를 위해서 유대인 민족의 거대한 힘이 프랑스를 위협할 정도로 막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그는 드레퓌스를 프랑스의 민족적 이익과 관련시켜 상징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시기 반유대주의 운동의 핵심 쟁점이었던 드레퓌스 사건과 드레퓌스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그것의 상징성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문화적 차이를 말해준다. 이유인즉 외국인들의 갑작스런 대량 유입은 프랑스의 ‘민족정체성’을 위태롭게 하고, 또한 새로운 이민자들과 ‘토박이’ 프랑스인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가로놓여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19세 말에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담론이 널리 유행했다. 그것은 프랑스 민족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사회유기체론에 입각하여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이 더 이상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사회적 장애를 겪을 것”이라 주장하는 장 로모니에의 이야기<sup>33)</sup>나, 또 “우리 인구가 이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약간 더 증가한다면, 그것은 외국인의 이민 때문이고, 우리의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사람은 외국인이고 이들의 위장된 침입이 미래에 대한 위협”이고 결국 “이들 외국인들은 교류의 결과로 그들 고유의 기질과 습성, 능력을, 나중엔 자신의 민족성을 잃게 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1883년에 한 의사의 주장<sup>34)</sup>을 보게 된다.

바레스 역시 당대의 사상적 조류와 담론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부모의 연속이고, 일련의 몸짓, 습관, 유전적

---

32) Maurice Barrès, *Scenes et doctrines du nationalism* (Paris: Juven, 1902), p. 34; 바레스는 당대에 문인이자 저널리스트이면서 정치가로 활동하며 2,500개의 기사들을 썼다. 그중에 민족주의와 관련된 약 400여개의 글들을 선별하여 1902년에 *Scenes et doctrines du nationalism*이라는 사료집으로 출간했다.

33) Jean Laumonier, *La Nationalité française*, t. II, *Les Homme* (Paris: Chamuel, 1892), p. 350, 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269쪽에서 재인용.

34) Jules Rochard, *Bulletin de l'Académie de médecine*, 1883, p. 281; 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270쪽.



반응들과 더불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그들의 생각과 말은 곧 죽은 자가 산자를 붙들게 하는 것이며, 장구한 변천의 산물로 프랑스 태생의 외국인과 구별 짓는 고유한 족류적·민족적 특성이 단순한 메타포가 아니라 우리 신경중추의 해부학적 구성요소들만큼이나 실제적인 현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죽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숭배, 그들이 살고 체험한 토지에 대한 우리의 숭배, 조국에 대한 신앙의 토대가 놓여 있다.”<sup>35)</sup> 그 역시 여러 외국인들 사이에 가로 놓여있는 문화적 차이를 태생적인 민족적 족류공동체적 특성과 연결시켰다.

## 2.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운동이 태생적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두드러지게 했다면,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한 반감은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두드러졌다. 1884년의 조사는 급진파에 의해 옹호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간섭정책의 출발점으로 기록된다. 외국인들에 대한 과세 계획은 이런 시각에서 나타난다. 이후 몇 년 동안, 급진파는 불량제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일부에 의해 합류하게 되는데, 서서히 민족작업장의 보호를 요구하는 쪽으로 나갔다. 푸르미(Fourmies)의 총살 이후, 이 주제는 민족주의자들의 반복되는 주제였다. 1893년에, 모리스 바레스는 외국인들에 반대하는 쪽으로 배타적으로 돌아선 하나의 강령(프로그램)을 취하게 되었다. 이것은 10년 전에 크리스토프 프라동(Christophe Pradon)이 표명했던 주장들 전부를 빌어다 쓴 것이었다. 프라동은 프랑스 시민들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들을 외국인들 때문이라고 비난했었다. 그가 “사회주의”<sup>36)</sup>라는 용어를 그의 편의대로 다시 찾은 것은 바로 그 때였다. 사회적 주제와 민족적 주제의 조합은 일정한 수의 사회주의자들과 불량제파 당선자들의 매력을 샀다. 두 주제의 조합은

35) Zeev Sternhell, *Maurice Barrès et le nationalisme français*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85), p. 259; 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270-271쪽.

36) 바레스는 1889년 11월 24일자 『동부통신(Le Courrier de l'Est)』에 이렇게 적고 있다: “다음과 같은 용어가 붙여진 이 사회주의는 프랑스가 프랑스의 희망을 걸고 있는 단어이다.” 이 차용어는 혁명적인 신문들의 빈축을 샀다. *Le Courrier de l'Est*, 24 Novembre 1890.

또한 급진파의 일부를 끌어당기기도 했는데, 비록 클레망소가 불량제장군의 모험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긴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민족-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대규모 공업 노동자들에게는 그리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민족주의에 맞서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운동의 창출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sup>37)</sup>

바레스가 반유대주의의 성향을 띠기 시작하는 것은 1889년 즈음에서였다. 1889년의 그의 낭시 선거 프로그램에서 바레스는 유대인 문제를 민족 문제와 결부시켰다. 그에 의하면, “유대인은 프랑스 안에서 그들의 독특한 성격을 계속 유지해왔었고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고립된 행동으로, 그들의 독점방식으로, 투기로, 그리고 세계주의로 대혁명의 원칙들을 위반했다. 군대에서, 지방행정 관직에서, 군대에서, 각료직에서 그리고 모든 프랑스의 행정직에서 그들의 수는 그들에게 권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상적인 비율을 초과했다. 그들은 나라를 부패시킬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지사, 판사, 세금징수원, 장교로 임명되었다. 이 위험한 불균형은 바로잡아져야 하고 진짜 프랑스 민족들에게 더 많은 존경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쉬운 귀화 방식에 장벽이 쳐져야 한다.”<sup>38)</sup> 게다가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에 모든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90%는 그들이 현역군 군복무를 피하려고 할 때만 귀화했다. 군복무는 국적의 조건이라고 선언하자. 게다가 귀화인(알자스-로렌에 대해서 이루어진 예외)은 단지 사적 신분의 권리만을 가져야 그 후손들만이 오직 프랑스 태생에 동화되어 정치적 권리를 누릴 것이다. 20년 전부터 기회주의체제는 유대인, 외국인, 세계주의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들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활력 넘치는 요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주었다. 그런데 라이나흐(Reinach), 코르넬리우스 에르츠(Cornelius Herz), 드레퓌스

37) Gérard Noiriel, *Immigration, antisémitisme et racisme en France (XIXe-XXe), discours publics, humiliations privées* (Paris: Fayard, 2007), pp. 172-173.

38) Barrès, *Scenes et doctrines du nationalism*, pp. 433-434.

대위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던가?”<sup>39)</sup> 이런 우려는 파나마 사건이 보여주었듯이, 유대인들이 프랑스와 해외에서 모두 강력해졌음을 반증했다. 비단 파나마 독직 사건뿐이던가? 드레퓌스 사건은 귀화한 유대인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는 한결음 더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1893년 낭시에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내걸었던 강령은 “외국인들에 맞서(Contre les étrangers)”<sup>40)</sup>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바레스는 유대인을 바람직한 자질들이 결핍되어 있고, 또 프랑스의 전통에 체제전복적인 하나의 강력한 외국의 인자로 보았다. 유대인은 바레스식의 의식에서 볼 때 전통이 없었다. 바레스에게 조국은 토지와 조상들, 즉 “우리 죽은자들의 땅”을 의미했지만, 유대인에게 그것은 그들의 최대의 이익을 발견하는 곳이었다. 그런 그들은 언제든지 조국을 배신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발견하는 곳이 그들의 조국이다”라는 사고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의 유형으로 여겨졌는지 알 수 있다.

본래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독점자, 고리대금업자, 증권거래소의 조작자를 지적하는 하나의 형용사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서 반유대주의는 사회주의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동맹국이었다. 드뤼몽의 『유대인의 프랑스(La France juive)』는 『라르뷔소시알리스트(La Revue socialiste)』를 위한 탁월한 준비였다.<sup>41)</sup> 이것은 당시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주의자들이든 민족주의자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대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감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들을 동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드레퓌스 사건은 ‘동화’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은 다른 존재였다. 바레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 결코 반역자일 수 없는 까닭은 그는 결코 하나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그의 최대의 이익을

39) *Ibid*, p. 434.

40) *Ibid*, p. 96.

41) Barrès, “La Formule antijuive,” *Le Figaro*, 22 février 1890.

발견하는 곳에만 속하기 때문이다.<sup>42)</sup>

바레스의 반유대주의는 단순히 유대인과 프랑스인의 적대감과 대결로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모순과 어려움에 봉착한 프랑스 민족의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보호와 국가의 간섭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불안정, 소상공인들의 불안정, 농업인의 불안정, 부르주아의 불안정 등 그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보호는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주의적인 조치, 즉 국가가 사물의 자연스런 흐름의 역행에 간섭하는 것이었다.<sup>43)</sup> 프랑스 민족은 지금 다양한 수준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에서 그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했다. 유대인 문제는 금융자본에 대한 반격<sup>44)</sup>으로 나타났다.

에릭 캄(Eric Cahm)에 의하면 당시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이 프랑스의 정부, 경제,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한 것에서도 비롯되었다. 특히 공화국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이면에는 바로 이들 유대인들의 악의 정신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화국 정부의 억압적인 정권은 훌륭한 가톨릭 신자들을 공직에서 몰아냈고, 예외의 바른 소상공인들은 붕괴했으며, 프랑스 노동자들은 유대인 자본가들에 의해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드뤼몽 같은 반유대주의자는 외국인의 지배는 일소되어야 하고, 프랑스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정직한 프랑스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세기말에 팽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45)</sup>

그러므로 유대인 문제는 모라스가 주장하듯이, 하나의 종교싸움도 아니고, 인종의 문제도 아니라, 단지 민족방어의 문제였다.<sup>46)</sup> 유대인은 금융, 교육, 그리고 저널리즘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고 강력했다. 그래서

---

42)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212.

43)Barrès, *Scenes et doctrines du nationalism*, p. 434.

44)*Ibid.*, p. 456.

45)Eric Cahm and Vladimir Claude Fišera, *Socialism and Nationalism* (Nottingham: Spokesman, 1979), pp. 52-53.

46)Charles Maurras, *Kiel et Tanger* (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21), p. 62;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214.

반유대주의의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프랑스인은 유대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자신들의 모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주인으로 남게 될까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프랑스의 정치체에 하나의 외국적인 요소였다. 그들은 프랑스 국가 안에서 매우 독특한 국가를 형성했고 북유럽과 남유럽에서 그들의 동료 유대인들과 연합했다. 그러므로 프랑스 시민 자격으로 유대인들에게 준 혜택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프랑스 조국을 배신한 것이고, 이는 유대인으로 표상되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의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었다. 1890년대에 바레스에 의해서 구상되는 바레스의 민족주의는 그 핵심이 프랑스 노동자들의 보호를 함의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보호주의가 곧 민족주의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바레스가 외국인들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것은 금융 특권세력에 대한 반대의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생산 활동의 모든 형태들을 점령하는 무수한 금융가들이 외국인들, 그것도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레스의 반감은 프랑스 민족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주의의 성격을 띠었다. 바레스는 실제 노동력보다도 제품들에 한해 적용된 보호주의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 바레스의 보호주의는 국내 시장과 노동력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각 계급의 사회적 정체성의 발전이 민족 정체성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 IV. 이주민의 민족 통합

##### 1. 공화국의 통합의 신화와 현실

프랑스혁명 초기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외국인도 인권선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형제애에 입각한 모든 평등한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외국인들은 국무, 행정, 군대에서 중책이 주어졌다. 그러나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역전된 것은 군사적 패배, 국내의 혼란과 경제위기가 잇따랐던 1793년 중엽 즈음이었다. 외국인 문제는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늘 정치투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 이후로 외국인들은 프랑스 민족의 집단기억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프랑스에서 이민은 늘 국가의 역사에서 외부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는 전시와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 되어 나타났다.

프랑스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동화의 문제는 신화와 현실 사이에 간극을 보여준다. 19세기 후반부터, 외국인들의 유입과 정착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프랑스가 노동력과 병사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국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인 1889년의 국적법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에게(속지주의) 그리고 프랑스에 프랑스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또는 외국인에게(속인주의) 프랑스 국적 취득을 확대했다. 1889년 국적법<sup>47)</sup>은 특정한 조건들 하에서, 외국인들의 귀화를 동일하게 용이하게 했다. 공화국은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통합하여 그들을 조국 프랑스를 위해 일하고 싸울 수 있는 프랑스인들로 만들기 위해 학교, 결혼 그리고 노동에 기대했다. 그렇지만, 역사가 제라르 누아리엘이 보여주었듯이, 이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한계가 많았고 “통합의 공화국적 모델”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사후 건설에 속했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래로 가장 높은 이주의 나라였었고, 19세기와 20세기 많은 기간 동안 프랑스의 동화 모델은 극히 잘 작동한 것처럼 보였다. 본래 이주민들의 아이들이 외국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시스템(체제)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프랑스 정권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주민들의 아이들을 그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민족화 하는 것을 추구했다.<sup>48)</sup> 이것은 때로는 프랑스에서 적어도 두 세대 동안 있었다는 조건부이기도 했지만, 민족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일단 그들이 프랑스 학교제도를 통과하고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한 재빨리 이주자들의 아이들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가 측의 분명한 목표를 대변했다. 이러한 목표는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47) 프랑스 국적법에 대해서는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Histoir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Paris: Grasset, 2002), pp. 37-61 참조.

48) *Ibid.*

않았고 제1차 대전을 지나서도 연이은 공화국 정부들에 의해 재확인되고 강화되었다.<sup>49)</sup> 이 기간에 동유럽 출신, 특히 폴란드인들 이주민의 수가 점점 증가함과 동시에, 이주의 압도적인 수는 국경 지역들에서 왔다—이탈리아인들, 벨기에인들,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포르투갈인들. 정말이지 이주민들과 ‘프랑스인’ 사이에 ‘족류적’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그들은 대부분 백인이고 가톨릭교도였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그들의 국적을 유지했다. 그들은 출신지 공동체 속에서 살았고, 그들의 모국어를 쓰고, 그들의 결사체들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그들이 보다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이주하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신속히 그 사회에 통합되었다. 이것이 어떤 이들이 하나의 신화라고 고발한 프랑스의 ‘도가니’였다.

그런데 프랑스 공화국의 이주민들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은 불안하며 실패했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들이 채택하기를 꺼려해서이든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차이들이 너무나 커서 극복할 수 없었던지 간에, 공화국적인 동화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또 프랑스 민족 정체성은 ‘외국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그것이 이주민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삶의 양식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보편적 시민권 사상에 토대를 둔 보편주의적, 동화주의적인 공화국의 가치는 문화적 정체성이 서로 다른 여러 특수한 집단들의 현실의 종교적, 족류적, 지역적 소수자들을 완전히 동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각각의 특수 집단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들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프랑스 민족에 동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상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분리될 수 없는 프랑스 정체성의 보편주의적인 모델은 지난 200년을 거치면서 프랑스 민족과 프랑스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공화주의자들이 분투했던 하나의 이상일 뿐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허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름은 엄연히 영속되었다. 공식적으로, 프랑스는 21세기

---

49) Paul Lawrence, “Naturalisation,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in France between the Wars”, *Immigrants and Minorities* 20, 3 (November 2001), pp. 1-24.



초에도 여전히 동화, 보편성, 그리고 동등한 기회라는 프랑스적 모델을 고수하면서 ‘다름’이나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는 지역적인 다양성, 종교, 젠더의 차이들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진짜, 영원한 프랑스’를 표상하는 것인 인종적 차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공화국은 충분히 프랑스에서 확립되었고, 주민들 안에서 문화적 차이들을 견딜 수 있으며, 또 프랑스의 공화국적인 민족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문화적이고 족류적인 보편주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의 부족—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지만, 싸움 없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sup>50)</sup>

## 2. 문화 충돌의 시대 민족

이주민 동화의 문제는 프랑스인을 구성하고 있는 족류 집단들을 프랑스 민족으로 만들기에 있어서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적인 동화 모델은 프랑스 민족 만들기(nation-building)의 하나의 의식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또 프랑스의 자존감과 정체성의 하나의 표시로 간주된다. 다양한 기원을 가진 각각의 개인들은 프랑스 언어와 문화의 획득을 통해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공화국적인 가치들(자유, 평등, 형제애, 민주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같은)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짜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민족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어왔다. 제라르 누아리엘은 그의 저서 『프랑스의 도가니』에서, 프랑스는 ‘도가니’ 사회의 원형적 모델인 미국보다도 핵심 가치들과 문화적 특성들의 하나의 공통된 열쇠를 가지고 다양한 기원을 가진 개인들을 하나의 단일한 민족체로 구조해내는데 훨씬 더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프랑스를 도가니(creuset)로 기술했다.<sup>51)</sup> 이런 담론은 이주민들이 완전히 프랑스인이 되는 데는 두 세대도 걸리지 않는 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제2세대에게 프랑스에서의 출생은 프랑스 시민권을 보증했고(jus solis), 프랑스 학교 제도를 통한 통로는 프랑스 언어와 민족의 역사 및 지형에 대한 지식 습득을 보증했는데 이런 것들이

50) Baycroft, *France*, pp. 224-225.

51) Gérard Noiriel, Geoffroy de Laforcade, trans., *The French Melting Pot: Immigration,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p. 214.

민족적인 정치제도들 내에서 시민권을 행사하기 위한 토대들로서 기여할 것이다. 남자들은 그들의 군복무를 담당할 것이고, 그들의 민족으로의 인도는 완성될 것이다. 상향적인 사회적 유동성은 비록 한 번에 짧은 한 단계만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가능할 것이라고 공화국의 전망을 내왔다.<sup>52)</sup>

하지만 19세기에 내내, 심지어 외국인으로 프랑스 시민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공화국적인 민족주의 담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프랑스 민족과 민족주의 담론들에 여전히 족류공동체적 차원이 존재했다. 비교적 ‘프랑스 인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족류적인 민족주의 사상은 반동적인 우파에 국한되지 않았다. 공화국과 개발 중인 상상 속에서도 또한 발견될 수 있었는데, 이들은 ‘프랑스 인민’을 언급했지만 정기적으로 그들을 외국인들이나 외국 인종들과 대비시켰다.<sup>53)</sup> 역사 교재들에서 ‘우리의 조상 골족’이라는 언급은, 주로 프랑스의 장수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프랑스와 고대 골족의 지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공통의 기원과 공유된 혈통에 대한 하나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족류 집단으로 근대 프랑스를 연결시키면서 공통의 조상의 역사를 발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의사-과학적 인종주의 이론들은 후기-다윈주의 시기, 즉 생물학적 차원들이 무수한 사회적 정치적 이론들에 덧붙여지게 되는 때에 개발됨에 따라, 특수한 신체적 특징이 유대인에게 덧붙여지게 되었다. 이런 특징들은 그것이 주장되는바, 그들을 진짜 ‘프랑스인’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그런 생물학적 인종주의는 유대인 공동체가 족류상으로

52) 그것이 몇 세대가 걸리는 예에 대해서는 Philippe Rygiel, *Destinées immigrés: Cher, 1920-1980, trajectoires d'immigrés d'Europe* (Besançon: Annales littéraires de l'Université de Franche Comte, 2001); T. Baycroft, France, p. 214; 이 동화된 개인들의 사회는 영국의 그것과는 비견될 수 있는데, 영국에서의 이주자들의 집단들은 그들의 모국의 문화의 문화적 전통들을 유지하도록 허용되고 장려되며, 또 정부 서비스는 여러 언어들로 제공되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문화적 공동체들이 번창하고, 아니면 캐나다와 같이 즉 문화적 ‘모자이크’를 자랑스러워하는데 캐나다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민행정부에 의해 지원된다.

53) Baycroft, “Ethnicity and the Revolutionary Tradition”, Timothy Baycroft and Mark Hewitson ed., *What is Nation? Europe 1789-1914* (Oxford: OUP, 2006), pp. 8-41; Baycroft, France, pp. 215-216.

프랑스 민족과 다르다는 인식, 즉 프랑스 내에 많은 다른 서클들 안에서 반향을 발견했던 하나의 입장을 늘어나게 했다.

20세기 중반 경에 이르면, 유럽 바깥으로 부터 많은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백인이 아니며 초창기의 이주 물결이 그랬던 것보다 더 문화적으로 주류 프랑스 민족 문화와는 다르다는 사실에 의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1970년대 경제위기, 그리고 계속되는 프랑스의 높은 수준의 실업 이후, 재개된 반-이주 담론이 장-마리 르 펜의 민족전선의 선거 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차별이 빈번히 늘어났고, 또 높은 수를 차지하는 이주자들은 높은 실업률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민족 정체성에 하나의 위협을 제기한다는 하나의 인식이 커졌다.<sup>54)</sup> 프랑스 안에 이와 같은 이주민에 관한 담론을 분석한 하그리브스(Alec G. Hargreaves)는 이주민들이 동화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문화적 차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이주민들 자신들을 비난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정말이지 하나의 경제 위기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후 시기 동안 이주 유입에서 비-유럽인들의 ‘꾸준한 증가는 상승하는 경제적 변형과 우호적인 노동 시장이 있는 한 프랑스인이 이들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sup>55)</sup> 그런데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주민들은 만족스럽게 민족공동체로 통합될 수 없었고, 민족공동체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이는 이주민들이 채택하기를 꺼려해서이든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차이들이 너무나 커서 극복할 수 없었던지 간에 공화국적인 동화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준다. 또 프랑스 민족정체성은 ‘외국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비-동화를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런 통합 모델의 실패의 원인에 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즉 그것은 공화국적인 모델에 내재된 허약함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당시 프랑스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의 본질이 변한 데서 기인하는가?

---

54) J. Freedman, *Immigration and Insecurity in France* (Aldershot: Ashgate, 2004) 참조.

55) Alec G. Hargreaves, *Multi-Ethnic France: Immigration,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2nd ed.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7), p. 147.

## V. 맺음말

프랑스혁명은 프랑스 이민 모델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종과 족류적 태생에 근거를 둔 모든 차별에 대한 거부를 명시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모든 문화적·종교적 관습은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또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주자들의 족류공동체의 정치결사는 금지되었다. 다시 말해 공화국의 이름으로 다양한 인종과 족류공동체에 대한 모든 차별은 금지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같은 이름으로 결성되는 정치적 결사나 이주민들의 족류공동체의 목적과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공화국의 전통을 위협하면서 공화국과의 충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프랑스 이민정책의 이중성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공화국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이다.

일찍이 페르낭 브로델(F. Braudel)은 말년에 쓴 그의 저서 『프랑스의 정체성』에서 프랑스가 무엇인지 명명하고 있다. 제1장의 제목을 보면 ‘프랑스의 이름은 다양하다’(que la France se nomme diversité)라고 불렀다. 즉 프랑스는 “다양성”이라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문에서는 “모든 민족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민족적 단일성(=일체성)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그것의 반영, 전위(轉位), 조건과도 같다”라고 적고 있다. 반면, 노라(Pierre Nora)는 ‘프랑스의 이름은 다양성(diversité)이 아니라 구분(division)’이라고 말하고 있다.<sup>56)</sup> 다양성에 상반되는 개념이 단일성(unité)이라 할 때, 단일성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 프랑스의 다양성을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그는 강조한다. 분명 지방들, 인민들, 언어들, 무한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다양성의 문화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족류공동체들의 특성인 족류성(ethnicity)이다. 이런 족류성에 대한 존재를 일찍이 포착했던 이가 바로 19세기 말 바레스였다. 바레스는 제3공화국이 추구했던 위로부터의 정치적인 민족통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프랑스 민족의 이 ‘갈라진 사회’의 분열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했고, 더욱이 외국인들과 유대인의 민족 통합의

56) Yves Florenne, “L’identité de la France de Fernand Braudel”, *Le Monde diplomatique* (Juin, 1986), p. 27; 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5쪽.

한계를 지적했으며, 그것이 바로 외국인들과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뿌리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족류성(ethnicity)임을 인식했던 것이다.

바야흐로 제3공화국 체제가 추구했던 종합이 사라지면서 전체의 유기적 단일성은 더 이상 역사의 연속성 및 영토의 획득된 조화에 좌우되지 않는다. 대신 “정체성(idendité)”에 대한 자각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역사의 가속화, 세계화, 민주화, 대중화, 미디어화 등으로 일어난 지각변동에 의해 역사의 연속성도 영토에 한정된 기존의 삶의 방식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sup>57)</sup>

현재적 관점에서 이주민들의 민족 통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날 EU가입, 민족국가들의 주권이나 독립성은 약화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국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있지만, 민족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민족국가들에서 민족 정서는 이주에 의해 오히려 강한 민족 정서가 생겨나고 있다. 주로 매스컴과 결부되어 가시적인 세계적인 불평등의 결과로 이주의 규모와 수는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를 지닌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인 이주민들이 민족에게 가져다주는 다양성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들의 재공식화를 추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의 대량 이주는 위성통신과 정보기술과 더불어 대량 수송과 여행은 타문화와 타자에 대한 민중의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족과 그 민족의 문화적 단일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그것의 단일한 족류적 기원들에 대한 오래된 분명한 확실성이 약화된 결과로 족류공동체들의 문화적 구성을 바꾸어 놓고 있다. 또한 오늘날 문화적 다원주의 때문이든 또는 장기적인 역사적 이유들 때문이든 서구의 국가들은 보다 시민적이고 영토적인 민족주의 버전을 작동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주둔국에서 시민들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족류공동체의 성격은 이주와 이민 물결에 의해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들 족류적 민족들은 보다 영토적으로 토대를 두고 다문화적인 정치

---

57)같은 책, 5-6쪽.

공동체 속으로 점차 변모해가고 있다.<sup>58)</sup> 민족을 이루는 족류공동체들의 성격의 변화는 때로는 족류적 성격이 강조되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민적 성격이 강조되어 나타나며 민족으로의 통합을 추동하고 있다.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는 오늘날 족류공동체들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들을 능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립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프랑스 공화국의 민족정체성의 근본적 특징들 중에 하나인 통합과 보편주의에 위배되는 족류공동체들의 문화적인 다름과 차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부족은 단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물론 그 과정은 싸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역사는 미래를 미리 결정지어 말하지 않는다. 단지 순간순간의 변화를 주시할 뿐이다.\*

숭실대학교 , mejdream@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이민(immigration), 민족(nation), 족류공동체(ethnie), 족류성(ethnicity), Maurice Barrès(모리스 바레스), cultural conflict(문화충돌)

(투고일: 2015. 11. 11, 심사일: 2015. 11. 14, 게재확정일: 2015. 11. 16)

---

58) Anthony D. Smith,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UK: Polity, 2010: 2nd edition), pp. 109-110.

<국문초록>

프랑스 이주민의 민족 통합,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19세기말 바레스를 중심으로-

마 은 지

프랑스로의 이주의 역사에서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대량 유입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기록된다. 이주민들은 프랑스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적인 보충적인 노동력과 군대의 병사들로 간주되었다.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산업화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모했다. 즉 경제 성장기에는 이민의 대량 유입이 일어났다면, 경제침체기에는 실업과 고용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그로 인해 최근에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과 프랑스 노동자들의 통합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외국인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적대감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외국인 혐오는 정치영역으로 파급되었다.

19세기말 민족주의자 바레스는 제3공화국이 추구했던 위로부터의 정치적인 민족통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프랑스 민족의 이 ‘갈라진 사회’의 분열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외국인들과 유대인의 민족 통합의 한계를 지적했다. 바로 외국인들과 유대인들의 족류공동체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족류성(ethnicity)을 포착했던 것이다.

프랑스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민족통합의 문제는 신화와 현실 사이에 간극을 보여준다. 그 근저에는 이주민들의 족류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국 통합 모델에 대한 재고가 논의되고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between  
myth and reality  
: focusing on Maurice Barrès in the late 19th century.

Eun JI MA

In the history of the immigration in France, inflow in large quantity mark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mmigrants considered as temporary use, substitute labor and soldiers. Immigration policy in France has changed with population decline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period of economic growth it happened mass inflow of immigrants, but unemployment and suspension of employment in the economic downturn. As a result, there was an integration between the foreign workers as new outcomers and French workers. This led to competition among them. Competition in the labor market produced strong antagonism against foreign. This spread to the political arena.

In the late 19th century a nationalist Maurice Barrès pointed out the limitation of the political nationalization from the top in the Third Republic. He tried to establish the cause of the 'divided society'. He grasped the ethnicity from the cultural foundation. It resulted from the ethnic difference.

The nation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tion shows the gap between myth and reality in the French society. Because the ethnicity of immigration underlies in it. Today the integration model of Republic is under discussion to reconsider.